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17 주차 (롬 5:13-21)

(2017년 4월 30일 - 2017년 5월 6일)

(제5권 17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sup>T</sup>ORY** 제5 권 – 제17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7년 4월 30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담의 대표성 (주일)

## 오늘의 본문 (롬5:13-14)

- <sup>13</sup> ἄχρι γὰρ νόμου (왜냐하면 율법의 때까지)  
ἀμαρτία ἦν ἐν κόσμῳ, (죄가 세상에 있었다)  
ἀμαρτία δὲ οὐκ ἐλλογεῖται (죄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μη ὄντος νόμου, (율법이 없을 때에는)
- <sup>14</sup> ἀλλ' ἐβασίλευσεν ὁ θάνατος (그러나 사망은 지배했다)  
ἀπὸ Ἀδὰμ μέχρι Μωϋσέως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καὶ ἐπὶ τοὺς μὴ ἁμαρτήσαντας ἐπὶ τῷ ὁμοιώματι τῆς παραβάσεως Ἀδὰμ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ὅς ἐστιν τύπος τοῦ μέλλοντος (그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 동물을 창조하시는데 먼저 하늘과 물에 사는 생물을 창조하신다. 공창인 하늘에 사는 조류, 그리고 공창 아래 바다에 사는 온갖 동물을 창조하시고는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셨다. 땅 위에 사는 짐승들과 기축, 그 외에 땅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다. 드디어 하늘, 바다, 땅 각각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생물들이 창조되어 그곳을 채운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마지막 창조 사역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 그 동안은 오직 말씀만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단지 명령하시면 그 자체로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창조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를 바로 앞두고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 1:26).

인간 창조는 여느 생물의 창조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당신 손으로 직접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그 속에 생명을 불어 넣는 방식을 택하셨고 그대로 이행하셨다. 아담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몸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특별한 존재였다. 인간의 첫 조상 아담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이라는 멋진 장소를 제공하셨다. 훗날 사람들은 그곳을 파라디스라 불렀다. 하지만 아담이 누린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 에덴에 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돕는 베필로 준 여자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급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아담)을 그들이 살던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나무로의 접근을 금하는 방식으로 사람(아담)과의 관계를 단절하셨다.

이런 관계의 단절은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다.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사망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후에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아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노아와 그

의 가족들도 끝내 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 성경은 사망을 죄의 값이라 선언한다 (롬 6:23 참조). 사망은 죄의 결과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처럼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역시도 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모두가 다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다. 죄는 하나님이 흠으로부터 가져와 만든 우리 몸을 다시 흠으로 돌려 놓았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명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들은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돼 버렸다.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범죄는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을 ‘표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표상은 헬라어로 투포스 (τύπος)다. 투포스는 일정한 틀을 이용하여 형상을 찍어내는 것을 말한다. 틀이 결정되면 무조건 그 틀대로 찍혀 나오게 돼 있다. 별 모양의 틀로 말가루 반죽에 찍든, 진흙 위에 찍든 무조건 별 모양이 찍혀 나오게 돼 있다. 죄를 지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불러 온 아담은 죄와 죽음의 대표자가 되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망쳐 놓은 아담이 그 이후에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한다. 오실 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아담이 죄를 대표한다면 예수님은 의를 대표하고, 아담이 사망을 대표했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대표한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결국 첫 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 된 셈이다. 본받아야 할 좋은 모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다.

지금 바울은 아담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죄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살면서 별로 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마지막에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 또한 뭐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담으로 인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죄를 묵상하거나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와 생명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으로 인해 당신은 어떤 상태에 처해졌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의 원천 (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5:15)

<sup>15</sup> Ἄλλ' οὐχ ὡς τὸ παράπτωμα, οὕτως καὶ τὸ χάρισμα: (그러나 은사 (공짜 선물)는 범죄와 같지 않다)  
εἰ γὰρ τῷ τοῦ ἑνὸς παραπτώματι οἱ πολλοὶ ἀπέθανον,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 것이라면)  
πολλῷ μᾶλλον (더더욱)  
ἡ χάρις τοῦ θεοῦ καὶ (하나님의 은혜와)  
ἡ δωρεὰ ἐν χάριτι τῇ τοῦ ἑνὸς ἀνθρώπ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  
εἰς τοὺς πολλοὺς ἐπερίσσευσεν.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범죄와 은사는 같지 않다. ‘범죄’는 헬리어로 파라프토마(παράπτωμα)다. 이 단어는 화살이 정확히 과녁을 맞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간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곁길로 간 것이다. 이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은 막혔다. 따라서 인간들이 어느 길을 택하든 그 길은 하나님께로 이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 해도 길 자체가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없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라. 그녀는 분명 죄를 지었다. 더 이상 얼굴 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워 정말이지 죽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를 붙잡은 유대인들은 그녀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들은 그 여자를 당장 광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 덕에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고 덕분에 살아났다. 살아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용서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녀를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표면상 보기에는 유대인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다.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의 종교적 사상을 시험하려 했고, 때마침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 유대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예수님을 꼼짝없이 움아 맬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종교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려 했던 것이다. 행위만 놓고 보면 그 여인은 분명 그녀를 붙잡아 온 남자들보다 훨씬 더 비윤리적이다. 분명 율법을 어겼고 죽임 당해 마땅한 자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지도 않게 예수라는 올바른 길로 걸어들어간 것이다. 남자들은 예수님을 대적자로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였다.

파라프토마(παράπτωμα) 즉, 범죄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다. 죄인이 의를 획득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다. 그것을 길이라 한다. 하나님이 정한 길 이외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려 하면 그게 무엇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죄를 씻기 위해 자기가 동원한 방법 그 자체가 또 다른 죄를 낳는다. 예수님은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사야서 53 장 6 절을 읽어보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우리는 모두 그릇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길로 갔다는 말이다. 다른 길이 더 잘 닦여진 길일 수도 있다. 더 선하고 옳은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결길이고 잘못된 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길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노력을 내려 놓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그 누구도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데 장사되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바울은 말한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예수님께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 파라프토마(παράπτωμα)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경의 율법을 모두 지켜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파라프토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길을 잃었다. 다 죄인이 된 것이다. 살인이나 간음을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죄다. 이렇게 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가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길이 예수님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선물이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우리에게 온 선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다.

이쯤되면 통상 이런 시비를 걸어오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좀 즐기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다.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다. 성경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정한 도덕이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 잘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크고 분명한 성도의 의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 사랑은 남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마음껏 하고 싶은대로 놀고 먹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 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일본일초가 아깝지 아니한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유유자적하고 있을 시간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까?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자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 나를 의롭게 한 하나님의 선물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5:16)

<sup>16</sup> και οὐχ ὡς δι' ἑνὸς ἁμαρτήσαντος τὸ δόρημα: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에게 의한 것 같지 않다)  
τὸ μὲν γὰρ κρίμα ἐξ ἑνὸς εἰς κατάκριμα, (심판은 한 사람에게 의해 정죄에 이르렀다)  
τὸ δὲ χάρισμα ἐκ πολλῶν παραπτώματων εἰς δικαίωμα. ([한 사람에게 의한] 선물은 범죄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담의 범죄가 무차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친밀한 관계에서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배우고 실천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몰랐다. 죄를 짓거나 부정해졌을 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였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사 4:1)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해주고, 잠시 평화가 찾아 왔다가는 다시 악을 행하는 삶... 가나안에서의 삶은 바로 이런 패전의 반복이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들을 부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기간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기간이 훨씬 더 길다. 그들이 특별히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쾌락을 쫓는 백성들이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자. 먼저 탕자라고 하면 어김없이 둘째 아들을 떠올린다.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구하고는 상속받은 재산을 들고 곧바로 집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그야말로 방탕하게 살았다. 한글 성경은 이를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고 번역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집을 나가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군소리없이 묵묵히 했다. 효자가 따로 없을 정도였다. 속으로 불만이 있어도 절대로 티를 내는 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챙겨가 출을 했던 동생이 거지 몰골을 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였다. 좀 과장을 보태 표현하자면 이랬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상 다리가 휘어지도록 산해진미를 차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다. 그 모두가 아버지의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침 일찍부터 발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 온 형은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리고 수년 전 집을 나갔던 동생이 말끔하게 차려입고는 아버지와 함께 상석에 앉아 잔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는 부아가 치밀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비

록 동생이라곤 하나 때문에 가까운 것을 저지르고 나가 놓고는 벼룩도 낮찍이 있지 제까짓 게 뭔데 이런 잔치를 즐기고 있던 말인가? 하지만 그를 더 분노케 한 것은 아버지의 태도였다. 동생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는 그러시면 안 되었다. 엄하게 가르치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게 마땅한 법이거늘 한 마디 호통은커녕 오히려 동생에게 잔칫상까지 차려 주며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어서 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자는 아버지의 권고에 그는 드디어 참았던 분노를 터트렸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눅 15:29~30).

형의 삶은 비난받을 만한 게 없다. 그리고 형이 분노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형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의 행위는 결코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못했다. 지금 큰 아들에게 무조건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 아버지의 눈에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모두가 사랑하는 자식이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를 더 넓게 하나님과 인간들로 생각해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품어주지 않으면 인간들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 처해있는 인간들을 죄인이라 한다. 그런 점에서 첫째 아들도 죄인이고 둘째 아들도 죄인이다. 둘 모두 아버지의 은혜로 잔치에 초대받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 여기서 더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오랜 노숙자 생활로 더럽고 찌든데다 돼지 우리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까지 나는 아들의 몸을 아버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덥썩 안았다는 사실이다.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안아주고 용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한다. 재판을 해서 정죄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선언한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에게 의한 것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에게 의해 정죄에 이르렀다.[한 사람에게 의한 선물은 범죄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롬5:16).

의로움은 죄인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차단되었고 그렇게 길이 차단된 상태를 죄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차단하셨던 그 길을 열어젖힌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 받으셨다. 우리에게겐 그 선물이 어느 날 갑자기 공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남이 장에 간다고 자기도 지게 지고 소 몰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일부러라도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미 누구나 다 죄인이다. 아담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생각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는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계속 걸으라.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나요?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임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나요?



##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5:17)

<sup>17</sup> εἰ γὰρ τῷ τοῦ ἑνὸς παραπτώματι (만약 한 사람의 범죄에 의해)  
ὁ θάνατος ἐβασίλευσεν (사망이 지배했다면)  
διὰ τοῦ ἑνός (한 사람을 통하여)  
πολλῷ μᾶλλον (더더욱)  
οἱ τὴν περισσεΐαν τῆς χάριτος καὶ τῆς δωρεᾶς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λαμβάνοντες  
(의의 선물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  
ἐν ζωῇ (생명 안에서)  
βασιλεύσουσιν (지배할 것이다)  
διὰ τοῦ ἑνὸ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집요할 정도로 사망과 생명의 문제에 매달린다. 사망의 원천은 죄고 그 죄의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나온다. 그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창세기를 읽다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등장한다.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취한 먼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성경은 아담이 생령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생령은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 있는 기운을 불어 넣으셨으니 당연히 살아 있는 영이 된 것이다. 인류는 이렇게 생령으로 시작했다. 애초부터 사망이란 그 안에 없었다는 말이다.

놀랍게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특별히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조성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말하지 않으시고 대신 사망을 경고하셨다. 그리고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 나무와 함께 두셨다. 혹자들은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죽음을 불러 오는 그 나무 사이에서 아담이 결국 죽음을 택한 거라고 말한다. 일단 그 의견을 받아들여 보자.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의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를 택했을까? 왜 아담은 생명보다 죽음을 택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질문에 대한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눈에 보여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의 모양 때문이다. 성경은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했다.

겉으로 보아서는 별 특징도 없는 생명 나무보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더 좋아보여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도 그렇다. 보기에 화려하지도 않고, 인간들에게 만족을 줄 만한 매력도 없어보인다.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미련해 보이기까지 한다.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마련이다. 율법주의가 그렇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강단에 서면 좀더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멋진 옷, 품위있는 행동, 그리고 귀에 들리는 거룩한 목소리 같은 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려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겉모습을 그럴

듯하게 꾸밈으로써 내면의 추함을 가릴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다. 성경은 이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한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인간을 그럴 듯하게 꾸밀 수는 있어도 생명을 줄 수는 없다. 겉모양만 꾸미고 내면의 더러움을 가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일갈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리사대<sup>2</sup>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sup>3</sup>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sup>4</sup>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sup>5</sup>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sup>6</sup>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sup>7</sup>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 23:1-7).

자신은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경문(쪽성경을 넣어 다니는 일종의 통 같은 것)을 아주 넓게 하고 옷술도 크게 해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 어딜 가든 늘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보다 대중들에게 어필하여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사망이 임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겉치레에만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과 종교적 위상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긴 독설을 퍼부으셨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 보자.

“<sup>25</sup>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sup>26</sup>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sup>27</sup>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sup>28</sup>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 23:25-28).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사석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 교회에서의 언어가 다르고 집에서의 언어가 다른 사람,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도 나이나 출신 학교나 지위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 속에는 강한 욕망과 더러운 생각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하고 관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사망에 속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렇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자들 중의 하나였다. 아니,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늘 이런 자신과 씨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역시도 사망의 덫에 묶여 있다가 생명되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제는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신이 진정으로 생명에 속한 자인지를 입증해야 할 때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을 믿기 전 당신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당신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신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5:17)

<sup>17</sup> εἰ γὰρ τῷ τοῦ ἑνὸς παραπτώματι (만약 한 사람의 범죄에 의해)  
ὁ θάνατος ἐβασίλευσεν (사망이 지배했다면)  
διὰ τοῦ ἑνός (한 사람을 통하여)  
πολλῷ μᾶλλον (더더욱)  
οἱ τὴν περισσεΐαν τῆς χάριτος καὶ τῆς δωρεᾶς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λαμβάνοντες  
(의의 선물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  
ἐν ζωῇ (생명  
안에서)  
βασιλεύουσιν (지배할 것이다)  
διὰ τοῦ ἑνό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다. 그 사망은 생명의 모습으로 인간들을 유혹한다. 사망은 인간에게 자신을 내세우라고 속삭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라고 유혹한다. 그 결과 사망은 세상을 의의 경연장으로 만든다. 사망은 교회 내에서조차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심이 좋고, 헌금도 많이 하며,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는 자라고 내세우게 한다. 사망의 특징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철저히 기억하고 내세우는 것이다. 행여라도 남들이 자신의 의를 잘 몰라주면 서운해한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자기보다 더 칭찬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한다. 사망은 밖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가도록 은근히 사람들을 부추긴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자기가 썩은 시신인 줄도 모르고 무덤 밖을 화려하게 치장하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생명은 다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의의 선물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라 부른다. 선물이든 은혜든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바울은 계속 그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

‘<sup>24</sup>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sup>25</sup>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4-25).

구원받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공짜 선물이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생명 이면에는 가장 참혹한 죽음이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또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대제사장 앞에서 온갖 수모를 견뎌내야 했다. 생각해

보라.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율법에 의해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그 율법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희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요즈음 우리 나라에서 권력을 잡았던 많은 분들이 감옥행을 갔다. 그들이 느꼈을 수모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떠셨겠는가?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는 것이 감히 그런 것에 견줄 수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아들 하나님이다. 그가 그렇게 수모를 당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하늘의 영광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마저 포기하셨다. 게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도 왕이나 귀족으로 나지 않고 시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가족조차 그를 외면했다. 공생애 기간 내내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꾸민 적도 없었다. 그리고 죽을 때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인 십자가 형으로 죽으셨다. 생명은 그런 것이다. 생명은 결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그의 모습은 인간들이 상상하는 거룩이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sup>2</sup>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sup>3</sup>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이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2-3).

이것이 생명의 모습이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꾸밈도 없다. 하지만 생명은 인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생명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봐야 한다. 군대 귀신이 들려 벌거벗은 채, 사슬에 온 몸이 묶여 공동 묘지에서 살던 그 남자에게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셨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부여주셔서 소생시켰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 끝내 숨을 거둔 열두 살 어린 여자 아이에게도 새 생명을 주어 살리셨다. 생명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자신이 살았다고 착각하며 자신을 꾸며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런 가망이 없다며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엎드린 사람들에게 생명이 온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상히 여기소서!”라고 목청껏 매달렸던 바디메오, 병든 딸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를 개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여인, 삼십팔 년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그 병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 그들 모두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의 절망적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 당신은 어떤가? 가감 없는 자기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생명을 기쁘게 받고 있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생명은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생명을 받은 자입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 생명을 받게 되었나요?

## 의를 전가 받은 사람들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5:18~19)

- <sup>18</sup> Ἄρα οὖν ὡς δι' ἑνὸς παραπτώματος εἰς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εἰς κατὰκριμα,  
(그런 즉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οὕτως καὶ δι' ἑνὸς δικαίωματος εἰς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εἰς δικαίωσιν ζωῆς·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의에 이르렀다)
- <sup>19</sup> ὥσπερ γὰρ διὰ τῆς παρακοῆς τοῦ ἑνὸς ἀνθρώπου ἁμαρτωλοὶ καταστάθησαν οἱ πολλοί,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전가받은 것처럼)  
οὕτως καὶ διὰ τῆς ὑπακοῆς τοῦ ἑνὸς δίκαιου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 οἱ πολλοί.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를 전가 받는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전가라는 말이 있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운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가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불공정한 단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헬리어에서 ‘전가’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잘못이나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도 전가지만 반대로 자신이 가진 의로움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도 전가다. 전가는 헬리어로 ‘카디스테미’(καθίστημι)다. 그 의미를 그나마 우리 말로 옮긴다면 ‘나에게 있는 것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타인이 내 대신 서게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검은색 천과 흰색 천이 있다면 그 둘을 맞대어 놓고 검은색 천에 있는 검은색이 모두 흰색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흰색 천은 점점 더 검은색으로 변하고 검은 색은 점점 더 흰색으로 변할 것이다. 검은 천에 있던 모든 검은 것들이 흰색 천으로 이전되고 나면 검은 천은 완전히 흰색 천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이 전가다.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 불의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예수님이 서야 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기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한다. 들은 사람들은 역울할 지도 모른다. 아무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죄가 전가되었고 죄인이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지식에 불과하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 필자는 죄의 전가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레위기 16장이라 말하고 싶다.

“<sup>6</sup>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찌니라 <sup>6</sup>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sup>7</sup>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sup>8</sup>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 을 위하여 할찌며 <sup>9</sup>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sup>10</sup> 아사셀 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 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찌니라”(레 16:5-10).

두 마리의 염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 염소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광야로 보내져야 한다. 한 마리는 제단에서 죽어야 하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둘 모두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염소를 잡을 때 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한다. 안수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다. 안수를 하는 순간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된다.

그런데 왜 염소를 두 마리 선택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제물로 한 마리만 드리면 될 일이다. 공연히 번거롭게 한 마리를 더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광야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두 마리를 골라서 한 마리는 제물로 잡고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나중에 광야로 보내라고 한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이다. 8절에서 10절까지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레위기 연구의 가장 권위있는 학자 중 하나인 제이콥 밀그롬(Jacob Milgrom)이 레위기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죄는 단지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근원을 없애는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불의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죄의 현상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 제거해야 한다. 구약 시대에 죄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주, 파괴, 추방 세 가지였다. 따라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은 바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죽여서 속죄를 하고, 다른 한 마리는 공동체의 죄의 근원을 전가하여 광야로 내다버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전가 받아 제물로 드리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죄를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의를 박탈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그 의로움이 손상되거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영원한 의로움이고, 그의 거룩함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항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 보자.

“<sup>40</sup>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sup>11</sup>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sup>12</sup>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sup>13</sup>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sup>14</sup>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0-14).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처지나 행위와 상관없이 거룩한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믿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흠 없는 제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율법의 양면성 (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5:20~21)

- <sup>20</sup> νόμος δὲ παρεισήλθεν, (율법이 개입했다)  
ἵνα πλεονάσῃ τὸ παράπτωμα· (그 결과 죄가 더하여졌다)  
οὗ δὲ ἐπλεόνασεν ἡ ἁμαρτία,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ὑπερεπερίσσευσεν ἡ χάρις, (은혜가 넘쳤다)
- <sup>21</sup> ἵνα ὡσπερ ἐβασίλευσεν ἡ ἁμαρτία ἐν τῷ θανάτῳ, (사망 안에서 죄가 지배했던 것처럼)  
οὕτως καὶ ἡ χάρις βασιλεύσῃ (그 결과 은혜가 지배한다)  
διὰ δικαιοσύνης (의를 통하여)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영생으로)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율법은 양날의 칼이다. 율법은 인간들을 상대화한다.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들을 포장하는 도구가 된다. 그들에게 율법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 이들은 될 수 있는 한 율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 모두를 율법을 통해 설명하고 싶어한다. 사도 바울도 한 때 율법을 그렇게 이해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훗날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

“<sup>43</sup>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sup>44</sup>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이골이 날 정도였다. 율법을 모두 지킨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 내기는커녕 자기들 멋대로 은혜 운운하며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불의한 자들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에 정한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며,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먹는 이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에게 율법은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대단히 매력적인 도구였고, 자신은 그 율법을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sup>4</sup>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sup>5</sup>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sup>6</sup>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4-6).

율법에 의존해서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유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을 도구 삼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율법에 속은 사람들이라 말한다. 율법으로 의를 행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율법으로 의가 아닌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이다. 인간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인간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함정에 갇혀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sup>10</sup> 생명에 이르케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sup>11</sup>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sup>12</sup>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sup>13</sup>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이니라<sup>14</sup>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롬 7:9-14).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다. 그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 한 게 죄라는 뜻이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려하다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의를 버리는 그것이 죄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그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다. 율법은 인간을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율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인간을 의가 아니라 죄 가운데로 이끈다는 뜻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바울이 율법이 개입하면 죄가 더하여 진다고 한 것은 율법은 지켜도 죄고, 어겨도 죄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율법을 어기는 건 명백히 죄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게 왜 죄가 되는가?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내면 도리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엔 지키나 안 지키나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은 죄인일 뿐이다.

율법이 개입하고 나서 그로 인해 죄가 더해졌다는 말은 율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말과 같다. 인간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 없다. 하나님은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척도로 죄를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율법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독약이다. 율법이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됐다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서 있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율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내어 스스로 의를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